

낭만과 방황이 던지는 물음

김지원의 《낭만의 집》, 윤대녕의 《달의 지평선》을 읽고

방민호

문학평론가

과연 무엇이 소설이나 하는 물음은 종종 소설에 대한 일원론적 이해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적절치 못한 것으로 여겨질 때가 많다. 또한 지난 몇 년 동안, 소설이란 이런 것 이어야 한다는 단언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견해가 많은 동의를 얻었던 것도 사실이다. 실로 소설의 본질을 생각하고 이로부터 소설의 이념형을 설정하려는 노력은 도로에 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바흐친이 그랬듯이 소설이란 이름의 괴물은 오로지 경험적이고 귀납적인 방법으로만 그 진상을 이해할 수 있으며, 또 그럴 때만 소설에 관한 이데올로기적인 견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이상의 소설만이 지상의 가치를 지닌다고 믿는 이에게 염상섭의 소설이 제대로 된 소설로 보일 리 없으며, 반대로 황석영의 소설만이 소설의 전형이라고 믿는 이에게 조세희 소설의 한계가 작게 보일 리 없다. 소설에 관한 각자의 도그마는 지금보다 더 많이 깨어지고 허물어져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 모든 소설의 유별(類別)들, 그 독자성을 일단 수긍한다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고, 또한 각각의 유별에 대해 독자나 비평가가 호불호(好不好)를 표할 수 있다는 사실과도 모순되지 않는다. 소설이 저마다 다를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은 작가가 저마다 다른 운명의 소유자임에서 연유한다고 할 때,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 작품의 가치를 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일까.

너무나 낭만적인 '낭만의 집'

김지원의 《낭만의 집》에서 독자들은, 이제 하가 이 작품의 해설에 붙인 "고전적 이취와 불가사의한 감동"의 일단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이 작품으로 미루어 보건대 그녀만큼 솜씨 있게 이야기를 끌어갈 수 있는 이도 흔치 않을 것이다. 설 연휴로부터 시작하여 그해 연말에 이르기까지 한 딸부자집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작가는 때로 일옥이라는 막내딸의 시각에서 때로는 전지적 화자의 시점에서 자유자재로, 그러나 넘칠 듯하면서도 전혀 넘치지 않는 낭만적 시선으로 이끌어간다.

독자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불길한 예감을

김지원의 《낭만의 집》은 그 자체로서 소중하고 신성한 삶이라는 관념을 드러내고자 한다. 《달의 지평선》에서 윤대녕은 삶의 이면에 이르지 못한 채 언제나 그 표면에서 자기 내부의 심연을 향해 두레박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고 말하고 있다.

갖지 않을 수 없게 하는 모옥이 아니라,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삶을 그토록 관대하고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일옥으로 하여금, 갑작스레 세상을 뜨도록 한 결말의 처리는 놀랍다. 또한 작가는 어느 하나의 특정한 종교에 기울지 않음으로써, 속된 종교의 방식으로 이해되는 삶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소중하고 신성한 삶이라는 관념을 드러내고자 한다. 절제되고 이름답고 때로 화려해지는 문체가 그와 같은 주제를 뒷받침해주고도 남음이 있다.

오로지 남은 문제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그녀가 이끄는 삶에의 긍정, 가족에의 긍정에 선뜻 동의하기에는 그녀가 보여주는 '낭만의 집'이 정녕 너무나 낭만적이라는 사실에 있다. 어떤 많은 이들에게는 그와 같은 낭만이 정녕 '불가사의' 하게 느껴질 수 있고, 그와 같은 이들에게 이 작품의 낭만은 너무나 멀고 꿈 같은 감정일 수 있다.

더 나아가 말한다면, 이 작품은 양철수씨 부부와 같이 여유롭게 황혼에 도달한 세대와 모옥이나 일옥과 같이 집이라는 잘 꾸며진 보호장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세대에게만 설득력을 지닐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다른 세대, 다시 말해 지금 한창 생존과 적응이라는 이름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세대에게 이 작품의 세계는 너무나 달콤하고 이상적일 것이다.

또 앞에서 말한 세대의 많은 구성원들에게도 이 작품은 삶에 대해서 너무 많은 환상을 심어주는 일이 될 것 같다. 현실의 삶



은 이처럼 가족의 안에서 행복의 근원을 찾기에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닐까. 물론 모든 것을 달관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이에게는, 이 작품의 세계는 돌도 없는 진실일 것이다.

불안과 방황의 세계

윤대녕의 《달의 지평선》을 보는 필자의 심정은 실로 당혹스럽다. 작가는 실로 오랫동안 삶의 표면으로부터 그 이면에 이르는 두레박을 던져왔고, 이 작품에서도 그와 같은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작가가 그 두레박을 건져올렸을 때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던가. 나는 잡히지 않는 그 무엇에 대한 설명의 언어를 찾기 위해 고심중이다. 그러나 그 언어를 드러내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불가사의한 심연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퍼올리고 있는 행위 그 자체로부터 그 자신의 정신적 정황에 관한 정보를 얻는 일일 것이다.

그의 작품은 언제나 물기로 젖어 있다. 그의 작품 주인공은 그것이 1인칭이든 다른 인칭의 형식을 빌리든 언제나 삶에 대한 상념에 젖어 있다. 또한 그의 작품에서 이야기는 많은 경우 우연히 만나고 덧없이 헤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양상은 이 작품에서도 별다르지 않게 나타난다.

이 작품은 두 권이나 되는 분량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소재나 주제 면에서 근본적으로

는 그의 많은 단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것이 있다면 이 작품을 일종의 후일담으로도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었지만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이 작품은 실은 후일담도 아니다.

후일담이라는 것은 운동을 했던 사람의 뒷이야기라는 형식 외에 더 중요하게는 그 이야기가 곧 자신의 이야기일 것을 요구한다. 즉, 주인공 또는 그렇지는 않다 할지라도 작중 인물과 작가의 일치가 후일담의 중요한 조건인 바, 후일담의 작가는 작품의 주인공 혹은 그 등장 인물 중 하나가 곧 자기 자신임을 드러내는 것이 된다. 내가 아는 한에서 이 작품의 주인공은 작가 자신과는 그 내력이 몇몇 결정적인 점에서 차이가 난다. 그러므로 나는 이 작품을 후일담으로서가 아니라 다만 작가의 정신적 상황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징후로 읽을 수 있을 뿐이다.

이때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는 것은, "한편의 긴 여행은 이제 끝났다. 더불어 서른일곱 살인 내 청년도 끝났다. 언제까지나 계속 되리라 믿었던 그 암암하고 푸르른 날이"라는 '후기'의 몇 문장이다. 실제로 나는 《은어남시통신》 이래 그의 작품에서, 삶이라는 이름을 가진 데몬의 실체에 도달하고자 하는, 그러나 아직 그것을 잡아채지 못한 청년적인 방황을 느끼곤 했다. 그의 작품 세계는 삶에 대한 어떤 태도의 세계가 아니라 그 태도의 도정에 나타나는 불안과 방황의 세계에 가까운 것이 아닐까.

적어도, 그가 던진 두레박에서는 어떤 의미의 결론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 어느 면에서는 이 작품 또한 마찬가지로, 창우와 그를 둘러싼 은빈·주미·수연·혜정 등으로 이루어진 이 긴 '허구'의 세계 속에서 나는 어떤 실체적 의미보다는 작가의 정신적 상황을 본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의 청년성은 아닐 수도 있겠다. 삶의 이면에 이르지 못한 채 언제나 그 표면에서 자기 내부의 심연을 향해 두레박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고, 작가는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셈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

· 《낭만의 집》 작가정신/A5신/238면/7000원
· 《달의 지평선》(전2권) 해냄/A5신/320면 내외/각 7500원